

# Market Intelligence

- 1.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.....1
- 2. 주요 통계 .....3
- 3.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시장진출 확대방안 .....4

## 주요 동향

- ◇ 美, Fed 차기의장 Yellen, “경기회복 위한 부양책 지속 필요”
  - 양적완화조치는 美경제에 긍정적 기여,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 목표(실업률 6.5% ↓, 인플레이션 2.5% ↑) 달성 전념 표명
  - (시장전망) 양적완화조치 규모감축 일정에 대한 언급 없어, 당분간 경제지표에 근거한 정책기조가 이어질 전망
- ◇ EU, 獨 과도한 무역흑자 시정 촉구, 시정방안 권고 예정
  - 獨, '07년 이후 매년 6% 초과한 경상흑자, 수출주도 정책이 유로지역 경제의 불균형 초래(EU 거시경제 불균형 보고서)
  - 내수진작, 임금상승 등 他유럽국의 獨시장접근성 강화하는 시정방안 권고 예상
- ◇ 中, 18기 3중전회 성명, “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”
  - 국가 통치시스템과 통치력의 현대화, 민간의 역할을 강화한 경제·금융개혁 등 포괄적 선언문만 발표,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담은 공보전문은 다음주 발표 예정
  - (중국사회과학원) 시장친화적 환율시스템, 부동산세 도입 등 예상
- ◇ 세계 중앙은행들, 저금리·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
  - 디플레이션 악화시 소비감소, 기업투자 및 고용감소 유발
  - 각국 중앙은행, 자산버블 형성 위험 감수하며 디플레이션 방지 최우선 (블룸버그)

## ① 외환시장

- (원-달러, 원-엔) 원화는 차기 美 연준의장 지명자의 양적완화 지지 발언 및 코스피 상승 등의 영향으로 **달러와 엔화 대비 강세**
- (엔-달러, 달러-유로) 美 달러화는 일본의 경제성장 부진과 이에 따른 부양책 확대 가능성으로 **엔화대비 강세**, 美 산업생산과 뉴욕주 제조업지표 부진 등으로 **유로화 대비 약세**

구 분	'12년말	'13. 11. 8	'13. 11. 15	전주비
₩/U\$	1,070.6	1,064.9	1,063.4	△1.5
₩/100¥	1,235.0	1,086.0	1,062.2	△23.8
¥/U\$	86.75	98.06	100.11	2.05
U\$/€	1.3192	1.3395	1.3449	0.0054

## ② 채권시장

- (韓 국채금리) 美 양적완화 지속 기대감 등으로 하락하였다가, 13거래일 연속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**상승**
- (美 국채금리) 美 연준의장 지명자의 양적완화 지속 확인으로 **하락**

구 분 (%)	'12년말	'13. 11. 8	'13. 11. 15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82	2.89	2.94	0.05
미국 국채(10년)	1.76	2.75	2.70	△0.50

## ③ 주식시장

- (韓 KOSPI) 엘런 美연준 의장 지명자의 양적완화 지속 표명에 따른 기대감과 외국인, 펀드의 동반 매수세 등으로 **상승**  
[(11.8) 1,984.87 → (11.15) 2,005.64]
- (美 DJIA) 美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, 美연준 의장 지명자의 양적완화 정책 지속 발언으로 **상승** [(11.8) 15,761 → (11.15) 15,961]

- ① **고용동향(10월)** : 고용률 60.5%(전년 동월대비 0.4%p ↑), 실업률 2.8%(전년 동월과 동일)
- 취업자는 2,554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7만 6천명 증가
  - 상용직 증가세 지속, 자영업자 감소폭이 축소되며 취업자수 3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증가
- ② **외국환보유액(10월)** : 3,432.3억불로 전월(3,369.2억불) 대비 63.0억불 증가
- 유로화 강세에 따른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및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에 기인
- ③ **BDI지수** : 1,507으로 전주대비 74point 하락
- 중국과 호주간 철광석 운송이 늘어나고 있으나 글로벌 물동량이 정점을 지나 감소하며 운임 하락
  - HRCI 지수는 0.5point 하락한 500.4를 기록
- ④ **유가** : 美 원유재고 증가로 WTI유는 하락하였으나, 이란 핵협상 타결 실패 등으로 Brent유 및 두바이유는 상승

(US\$/배럴)

유 종	11월 8일	11월 15일
WTI유 현물	94.51	93.71
Brent유 현물	104.67	108.34
두바이유 현물	102.43	105.06

- ◆ 최근 우리 정부의 '유라시아 이니셔티브\*' 제안 등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바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시장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.

\* 유라시아 지역 철도망 연결, 북극항로 개발,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해 거대 단일시장 형성

## 1. 중앙아시아 지역 특성

- (지리적 환경) 중앙아시아\*는 러시아, 중국 및 인도와 인접해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지정학적 이점 보유

\*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키르기즈, 타지키스탄 지칭

- (부존자원) 원유·가스·석탄 및 다양한 광물 자원 보유

-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카자흐스탄은 원유(세계 12위)와 석탄(세계 9위) 매장량 풍부

\* 카자흐스탄(크롬, 우라늄, 레늄, 아연, 카드뮴, 몰리브덴), 우즈베키스탄(형석, 금), 타지키스탄(안티모니), 키르기즈(수은) 등 다양한 비철금속 분포

###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

구 분	카자흐스탄	투르크메니스탄	우즈베키스탄
석탄 (백만톤)	33,600 (9위)	-	-
천연가스 (조m <sup>3</sup> )	1.3 (23위)	17.5 (4위)	1.1 (24위)
원유 (억배럴)	300 (12위)	6 (46위)	6 (47위)

자료: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(2013. 6).

- (경제현황) 중앙아시아 5개국은 2010년 이후 평균 6% 이상의 경제성장 지속. 경제규모는 카자흐스탄이 크고, 인구는 우즈베키스탄이 많은 편
- 중앙아시아 지역은 체제전환국으로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소득수준이 5천 달러 이하로 낮은 수준

## 주요 경제지표

단위: %, 억달러, 백만 명, 달러

구 분	경제성장률	GDP	인구	1인당 GDP
카 자 호 스 탄	6.6	2,005	16.9	11,864
우즈베키스탄	8.3	511	29.8	1,715
투르크메니스탄	7.7	245	5.1	4,804
타지키스탄	7.3	76	7.9	962
키르기즈	1.5	65	5.4	1,204
평 균	6.3			

주: 2010~12년 평균 경제성장률.  
자료: EIU.

## 2. 중앙아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 및 주요국 진출 현황

- (인프라 개발현황) 중앙아시아 5개국은 열악한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에너지(254.3억 달러) 및 운송(82.7억 달러)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### 국가별 주요 인프라 사업추진계획

단위: 억 달러

국가명	에너지	운송	비고
카자흐스탄	198.0	58.8	석유·가스, 전력, 도로
우즈베키스탄	53.0	13.3	전력 도로·철도
투르크메니스탄	-	1.7	철도
타지키스탄	2.1	6.2	전력, 도로
키르기즈	1.2	2.7	전력, 도로

자료: CAREC 등.

-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산업별로는 에너지(석유·가스, 전력), 운송(도로·철도) 등의 분야에 주로 사업 추진
- 취약한 정부재정으로 인해 인프라 개발은 외국인투자 유치, MDB 지원 등을 통해 추진

### 주요 MDB 지원 프로젝트

단위: 억 달러

국가명	프로젝트	사업규모	자금지원기관
카자흐스탄	발하쉬 화력발전소	38	ADB 등
우즈베키스탄	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	40	ADB 등

□ **(주요국 진출현황)** 중앙아시아 주요 진출국은 EU(네덜란드, 영국 등), 러시아, 미국 등이며 카자흐스탄에 주로 집중(77%). 최근 영국과 중국이 대규모 투자 예정

○ **(영국)** 캐머런 총리가 2013년 6월 말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10억 달러 규모 투자지원 약속

\* 영국 Shell은 카자흐스탄 카사칸 유전(세계 최대 추정 매장량 350억 배럴) 개발사업에 참여(55억 달러 투자)

○ **(중국)**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초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

- 에너지 및 운송 부문 인프라 투자(480억 달러) 약속

\* 카자흐스탄 300억 달러, 우즈베키스탄 150억 달러, 키르기즈 30억 달러

- 태평양에서 발트해까지 동·서·남을 운송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**실크로드 경제권(Economic Silk Road)** 건설 제안

### 3.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확대방안

□ **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진출 현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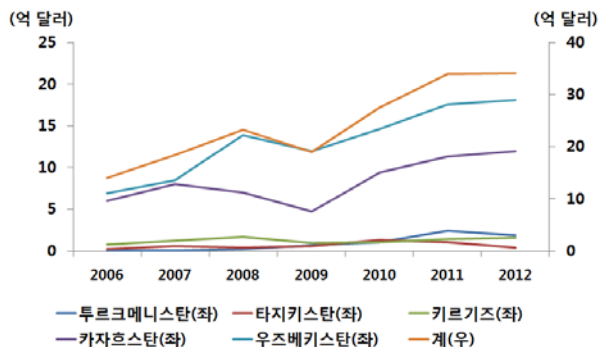
○ **(교역 현황)**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교역은 2012년 연간 34억 달러로 우리나라 교역규모 대비 0.3% 수준

-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전체 교역규모의 88% 차지

○ **(투자 현황)** 카자흐스탄(92%)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2008년 금융업 투자(BCC 인수)가 급증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2.5억 달러 수준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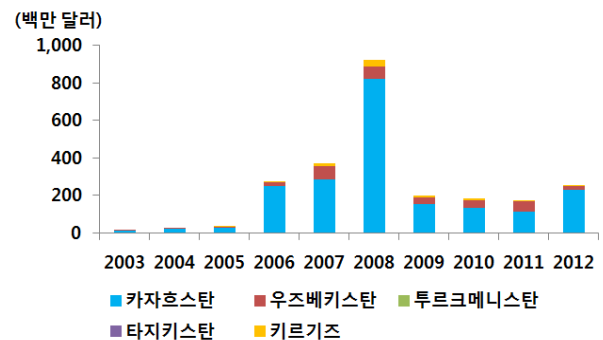
-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, 제조업, 건설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

**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**



자료: 무역협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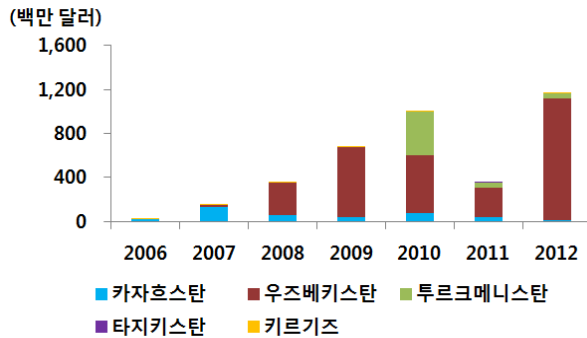
**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실적(투자금액)**

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.

- (당행 지원 현황) 중앙아시아에 대한 여신비중은 1.8% 수준이며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에 집중(95%)
- EDCF는 총승인액의 1.9%가 동 지역에 지원되는 등 미미한 수준

국가별 여신 지원 실적



국가별 EDCF 지원 실적

(단위: 건, 억 원)

구 분	우즈베키스탄	카자흐스탄	키르기즈
건 수	6	1	1
승 인 액 (집 행 액)	1,445 (1,070)	163 (161)	161 (161)

## □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확대방안

- 시장 특성을 고려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시장 진출전략 필요
  - 인구와 교역 규모가 큰 우즈베키스탄 또는 기업경영환경이 양호한 카자흐스탄(50/189위) 등은 생산거점으로 활용
  -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자흐스탄은 소비시장으로도 활용 가능
- 자원보유국의 경우 에너지·인프라 사업 등이 활발한 점을 감안, 자원 또는 전력·도로 등 SOC 건설 사업 참여
  - 카자흐스탄은 2012~15년 중 147억 달러 규모의 석유·가스 사업, 51억 달러의 전력 프로젝트 추진
  - 우즈베키스탄은 2011~15년 중 53억 달러 규모 전력 사업 추진
    - \* 현대건설 컨소시엄 8억 달러 규모 탈리마잔 화력발전소 수주
  - 투르크메니스탄은 13억 달러 규모 가스탈황설비 건설사업 진행 중
-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국인 타지키스탄, 키르기즈의 경우 MDB 지원 사업 참여 또는 KSP 등 EDCF 사업 발굴
  - 정부 직접 발주사업에 비해 리스크가 낮은 MDB 또는 EDCF 사업 활용
  - 현지 정부와의 밀착형 사전협의를 통한 MDB 지원 사업 활용 필요
    - \* MDB와의 협조체계 구축 및 공동 금융지원 추진